**동북아시아 정세와 한중관계**

**이근(李根)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**

* **Rising China, Retreating America, Declining Japan (Over-reacting Japan)**
* **Cooperation to Strengthen Open Multilateral Order in East Asia**

**[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후퇴 (retreat), 그리고 한국의 연루 위험]**

1.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.

* 이웃에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존재함으로 인하여, 한국에게 잠재적 안보위협,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들고 있음
* 특히 초강대국이 인접하고 있으면 자국의 안보를 지킨다는, 자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의 주권적 권리까지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 발휘의 위험성도 상존함.
*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,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심화됨. 이러한 의존 관계는 중국에게 커다란 영향력 (leverage)를 주게 되어 한국이 외교정책을 수립, 실행할 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됨.
*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강대국 간에 갈등, 긴장관계가 생길 경우, 즉 중국 및 미국, 일본과 갈등이 생길 경우 지리적으로 그 중간에 위치한,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그 갈등 및 긴장관계,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함.
* 중국의 공산당 일당체제는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이므로, 정치적 필요 시 모험적인 민족주의 외교정책이 나올 제도적 조건이 존재함.
* 반면 중국은 커다란 시장을 제공하며,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 있어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,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임. 특히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는 우리가 버리기 힘든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.
* 또한 우경화되는 일본에 대한 대일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카드를 조심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자산이 되기도 함.

1. 미국의 상대적 후퇴는 아시아 지역에 힘의 공백 및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있음.

*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(Rebalancing)정책, Pivot to Asia라는 구호로 아시아로 회귀를 강조하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산적한 경제문제, 그리고 중동 문제 및 대 테러전, 러시아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.
* 특히 중동문제와 대 테러전은 미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이므로 아시아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한정된 자원으로 외교를 해야 하는 미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,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생겨날 우려가 있음.
*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 후퇴는 중국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.
* 그 불확실성의 하나는 아시아의 안보부담을 지역 동맹국에게 이전시킴으로 인하여 (burden shifting) 세력균형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는 것임. 특히 일본으로의 안보부담 이전은 한중일 관계에 매우 민감한 새로운 안보 동학을 만들고 있음.
* 또한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부담을 MD와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미중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,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음.
*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상대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, 또한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, 즉 시장의 면에서도 위상이 떨어져서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음.
* 또한 미국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만큼 역할을 못하거나 안하고 있음.

**[일중관계와 한일관계의 불안정성]**

1. 미국의 burden shifting과 일본의 정상국가화

* 일본의 아베정권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미국의 burden shifting을 일본이 정상국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.
* 이러한 움직임들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불안정성,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됨.
*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세계 2, 3위 경제대국의 자리가 바뀌면서, 소위 일본의 9-11 모멘트가 형성되어 매우 과민한 국민정서 및 외교적 과잉반응이 나오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.
* 이러한 일본의 과민한 정서와 과잉반응이 제국주의적 역사관과 겹치게 되면 자칫 일본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, 이것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안보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
**[한중관계 제언]**

* 한국과 중국 공히 개방적 다자주의에서 국가이익이 극대화되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 이외의 대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, 이러한 개방적 다자주의를 강화, 발전시키도록 공조하여야 할 것임.
* 특히 일본과 미국의 과잉반응이 일방주의적 외교 안보정책으로 나오지 않도록 개방적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협의하고, 견제, 균형하는 공조전략이 필요함.
* 이러한 개방적 다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면 견제, 균형하는 대상은 일본,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해당됨.
* 따라서 당사국들이 합리적으로 개방적 다자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식, 비공식적인 협의, 회담, 제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.